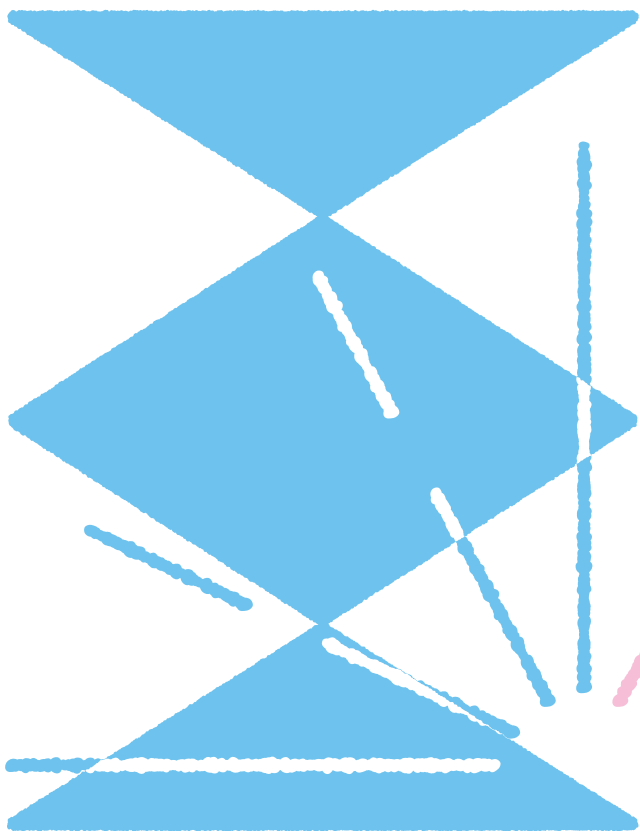




아트강의



아티팩트



목차

6	아트경기 소개
7	행사안내
8	2023 아트경기 작가 목록
10	2023 아트경기 작가 소개
72	2023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및 제휴사업자

아트경기 소개

24시간, 365일, 아트경기는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작가의 작품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아트경기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시각예술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미술시장 진입, 그리고 건강한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트경기 사업모델의 독창성은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작(작가)-유통(사업자)-소비·향유(대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는 사업자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미술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자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작가와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올해는 아트경기 작가로서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0인의 시각예술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전시, 아트페어 등을 통해 선보입니다. 다각화된 미술시장의 형태를 반영하여 기획된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고 미술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트경기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작가 발굴과 유통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사안내



미술장터

‘미술장터’는 아트경기 작가 전원이 참여하는 미술축제입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민 참여형 전시로서 아트경기 전반의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아트페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글로벌 성격의 아트페어에 아트경기 작가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작가의 미술시장 진입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팝업갤러리

‘팝업갤러리’는 접근성과 유동성이 높은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에서의 전시·판매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미술품 감상 기회 확대와 소장을 유도합니다. 독창적인 주제와 기획이 돋보이는 행사로, 적극적인 작가 홍보와 판매를 진행합니다.



제휴사업

‘제휴사업’은 미술품 유통분야 기업과의 협업으로 아트경기 작가의 미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유통플랫폼을 지원받아 미술시장에서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사업유형	행사명	일정	장소	기획
미술장터	2023 아트경기업 ↑ 미술장터	9.1—9.10	서울 용산구 용문동 32-39	갤러리 끼
	2023 아트경기업 ↑ 팝업갤러리	10.27—10.29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	갤러리 끼
팝업갤러리	네오 헤리티지 2023 ‘This side of paradise’	10.21—11.11	서울 금호 알베르	팀서화
	업클로즈 05	11월	미정	아트플레이스
미술품 임대 · 전시	미술품 임대 · 전시	5월—12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칸 KAN
아트페어	URBAN COLLECTIBLES	8.11—8.13	방콕 퍼블릭하우스 호텔	아트플레이스
	오픈갤러리 미술품 온라인 렌탈 서비스	9월—12월	온라인(오픈갤러리)	오픈갤러리
제휴사업	아트경기 × ZERO BASE	8.11—8.17	전시 : 서울옥션 강남센터 경매 : 온라인(서울옥션)	서울옥션

Kang, Lia

강리아

Kang, Bora

강보라

Kang, Sangwoo

강상우

Kang, Haechan

강해찬

Go, Eunjoo

고은주

Koh, Juhjung

고주형

Koo, Seoyi

구서이

Kwon, Hansol

권한솔

Kim, Kyungwon

김경원

Kim, Miji

김미지

Kim, Sujeong

김수정

Kim, Yeosul

김예슬

Kim, Eunsook

김은숙

Kim, Jaeik

김재익

Kim, Jieun

김지은

Kim, Harim

김하림

Kim, Hyunha

김현하

Kim, Hyunho

김현호

Kim, Heeyon

김희연

Kim, Heejin

김희진

Na, Kwangho

나광호

Noh, Hansol

노한솔

Lee, Hyeokjong

리혁종

MooAlee

무아리

Park, Soh-hyun

박소현

Park, Iljong

박일종

Park, Jisoo

박지수

Baik, Jongha

백종하

Beom, Jinyong

범진용

Seo, Minjeong

서민정

Seo, Haeyoung

서해영

Shin, Youngmi

신영미

Sim, Hyosun

심효선

Yang, Seungwon

양승원

Aeu, Hyungjin

어형진

Yeon, Hosuk

연호석

Oh, Jahyun

오자현

Lee, Sejun

이세준

Lee, so

이소

Lee, Jeongok

이정옥

Lee, Jeonghyeok

이정혁

Lee, Juyeon

이주연

Lee, Jihyun

이지현

Lee, Hyungkyun

이형균

Lee, Hyoju

이효주

Lim, Seungkyun

임승균

Lim, June-young

임준영

Im, Cheolmin

임철민

Chang, Yanghee

장양희

Jeon, Soyoung

전소영

Jeon, Eunjin

전은진

Jung, Junggho

정정호

Chung, Juhee

정주희

Choi, Kyungah

최경아

Choi, Kyuyun

최규연

Choi, Eunkyung

최은경

Choi, Jinhee

최진희

Choi, Taehoon

최태훈

Ha, Jiin

하지인

Han, Booyeol

한부열



강리아 Kang Lia

(b.1989)

강리아는 아이들의 순수한 드로잉에서 현대 미술적 조형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2022년 이후로 아이들의 드로잉이 그려진 종이와 키치한 사물로 구성된 작품을 이어오고 있다. 불완전하지만 현실을 자각하고 중심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것을 구겨진 종이와 어린아이의 드로잉, 화면 전체를 아우르는 사물들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속 종이 표현하는 이미지는 순수를 상징한다. 종이 속 그림은 작가 본인이 추상적으로 여기는 완전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환상을 의미한다. 반면 종이의 구겨짐은 현재를 표현한다. 종이 속 드로잉 혹은 종이접기, 페이퍼 커팅으로 표현된 이미지는 '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 결국 종이라는 오브제만 남음을 뜻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누구나 한 번쯤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봤잖아?>(남영 미술장, 2023), <그때 누구나였던>(갤러리 3안, 2020) 등이 있다.

일루전, 즐기고 단순하게

53X45cm, Acrylic on the back of the canvas, 2023



강보라 Kang Bora

(b.1994)

강보라는 일상 속 마이크로(micro) 입자들에 주목하여 작은 입자들이 구성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그는 외부 환경에 의해 이주하며 일상 속 균열을 일으키고 다시 다른 것들과 화합하여 변모하는 '먼지'를 이용한 작업을 오랜 시간 지속해 왔다. 그는 먼지처럼 극히 작은 입자들에 주목하여 그 흔적을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서로 충돌하고 엉겨 붙으면서 변화하는 입자들을 판화적 기법으로 표현한다. 입자들이 이동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 현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간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은 입자들이 결코 커다란 우주를 형성하기에 미흡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마이크로(micro) 입자들을 가상 공간에서 수집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Cosmic Dust>(탈영역우정국, 2022), <뮤(μ)>(공간 일리, 2021) 등이 있으며, 한국 Microsoft, 경기도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인천미술은행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내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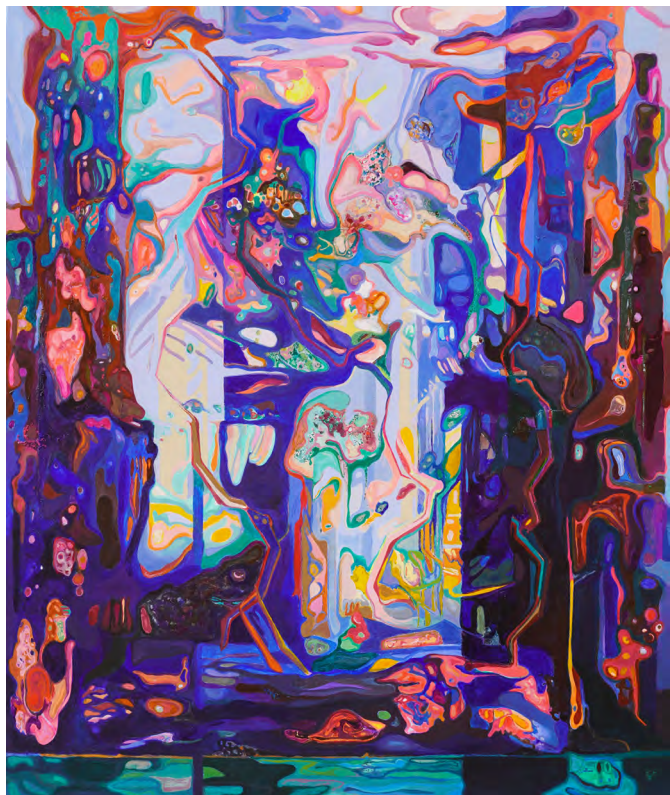
가변 설치, 모바일 기반 공간 현실, 2022



강상우 Kang Sangwoo

(b.1977)

강상우는 작품 세계에서 기억 속의 특징한 환상적 이미지와 일화들을 다룬다. 환상은 현실의 이면을 되비추는 거울이라 가정하고, 이를 통해 환상적 이미지와 경험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 및 변형되는지 관찰하며 실제와 환상이 벌이는 각축 상태를 다룬다.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입체, 설치, 페인팅, 드로잉 등의 방법으로 작업화한다. 그는 유소년기의 수많은 기억 속의 환상적 요소들을 주요 소재로 한 작업들을 통하여 환상적 이미지와 경험들이 어떻게 현실과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 질문하고 반응하고자 한다. 특히 2022년 전시 'Men on the Moon'에서는 미국의 1970년대 예능인 앤디 카우프만의 기이한 예술 활동들로부터의 자극을 계기로 평면 회화 매체의 자유로운 유행을 위한 여러 상상적 이미지와 형식들을 시도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Battle.net>(오분익일, 2023), <True Nature>(갤러리 활, 2022)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Men on the moon O4
116.3x91x2.7cm, acrylic on canvas, 2022



강해찬 Kang Haechan

(b.1995)

강해찬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비가시적인 존재들이 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를 작품에 담아낸다. 특히 공기와 대기 중의 물방울이 만나 서로 충돌하며 빛을 내는 과정을 다양한 색채로 시각화하여 대중들에게 일상에 대한 감각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일상적인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운 대기, 빛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자극을 일깨워 주는 감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물빛 대기>(갤러리 도스, 2022), <Sunlight Punch>(유행공간, 2022) 등이 있다.

물빛 무지개 1
130.3x16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고은주 Go Eunjoo

(b.1983)

고은주는 ‘불안’이라는 정서에 주목하여,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전통적 기원(冀願) 문화인 부적, 설위설경(設位說經), 지화(紙花) 등을 예술적 도구로 차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과 대칭적 구도, 오방색의 조화로움을 예측 불가능한 불안의 시대를 사는 작가 본인을 비롯한 현대인들의 삶을 위로하는 불안의 해결책으로 승화시킨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제약 없는 자유와 많은 선택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 집단 관계 속에서 고독, 절망,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 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작품을 통해 위로하고자 한다. 불안의 해결책으로서 오랜 역사 체험 속에 축적된 전통 기원 문화를 차용한 작품을 통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잠시, 행복>(갤러리 도스, 2023), <Hidden Flowers>(후쿠오카 아시안미술관, 2021) 등이 있다.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삼성테스코, 화이자 제약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고주형 Koh Juhyung

(b.1994)

고주형은 자신에게 특별한 인상으로 각인된 이미지와 사진들을 골라 여러 크기로 크롭 한 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을 즐긴다. 또한 대상의 특징을 집약하여 단순화시켜 기록하기도 한다. 2023 아트경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과 시장에서 관찰한 다양한 먹거리의 특징을 단지 몇 개의 선만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판화 작품을 선보인다. 시장을 소재로 한 6점의 Silkscreen 작품에서는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과 따뜻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느끼는 신선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하늘과 구름, 나무 등의 자연을 몇 개의 선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순수성, 평화와 조화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우리가 기억한다 기록한다>(군포문화예술회관, 2022),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구서이 Koo Seoyi

(b.1984)

구서이는 '풍경', '현존', '명상'을 키워드로, 걷다 마주한 순간들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캔버스로 옮길 때는 풍경을 마주했을 때의 비일상적인 감정과 깨어남을 느꼈을 때의 감각이나 반응, 에너지의 변화 등 그 경험의 순간을 화면에 담고자 한다. 동시에 그러한 감각의 총체적 경험을 회화의 촉각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작업을 할 때도 작업의 육체적 행위 자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때의 감각이 다른 에너지로 발산되고 환기되는 과정을 음미하려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작가 본인의 작업이 보는 이들에게 낭만적인 감상 대상으로의 풍경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각적으로 재구성된 풍경화로서 감각을 열어주고 에너지를 환기하며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고양우수작가공모전: 고양아티스트365>(고양아람누리 해반아트, 2022)가 있으며, <The Expansion of Time>(롯데갤러리 Spazio,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 특별전 3: 바람과 흔적 플래그 아트>(정북동 토성, 2019)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130.3 x 162.2 cm, Oil on canvas, 2021



권한솔 Kwon, Hansol

(b.1996)

권한솔은 다양한 주제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다. 동양화와 서양화 두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독특한 장르를 펼쳐 나가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뛰어난 색채감으로 이를 표현한다. 그의 그림의 중심에는 늘 '노래'가 있다. 그림의 소재가 꽃이든, 고양이든, 자동차든, 그들만의 노래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한다. 이 때문에 그의 그림에는 늘 입체적 소리가 들려온다.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소리의 만남, 작가 권한솔만의 공감각적 즐거움이다. 또한, 그림의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있다. 그러기에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함과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엄마에게 칭찬받을 때의 행복감, 엄마에게 야단맞았을 때의 속상한 감정 등 엄마와의 일상이 다양한 표정으로 담겨있다. 엄마로 가득 찬 밝은 색채와 자녀를 향한 엄마의 눈물겨운 사랑, 작가 권한솔만의 도란도란 가족사를 엿볼 수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유산-SO LOVE VII>(아리수갤러리, 2023) <SO-LOVE II>(아리수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한국화랑협회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을 바라볼 때 심리학자의 입장, 작가의 입장, 아트 페어 사의 입장, 관객의 입장이 있다. 권한솔은 그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작가이다."
—배운수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아이고 편하다

53x72.7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22



김경원 Kim Kyungwon

(b.1982)

김경원은 반복과 노동을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이를 통한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공유하고자 한다. 어떠한 개체를 반복하여 묘사하는 노동의 횟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형태의 군집을 창작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개체를 오로지 반복이라는 조형 요소만으로 빚어낸 군집의 형태가 완성되어 갈 때 그 속에 리듬과 통일, 조화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반복된 개체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사회 제도 속 규격화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패턴으로 삶의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동물을 같은 모습으로 중첩시킴으로써 규격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시키고, 수작업으로 그려진 동물을 통해 사회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지만 각자 다른 존재와 자아를 가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익숙한 반복>(춘천문화재단 예술소통공간 곳, 2021), <같은, 유사한, 차이가 나는>(Fill Gallery, 2021) 등이 있으며, 경기도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조우, 첫만남

45.5x45.5cm, acrylic on canvas, 2022



김미지 Kim Miji

(b.1994)

김미지는 마주하는 오늘을 편안하게 살아내는 태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한다. 작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짧은 선 굿기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내뿜는 규칙적인 호흡과 같다. 이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 불안함과 서투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움을 달래고 위로하는 작가만의 방식이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오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나갈 방법을 찾고, 맞이하는 오늘이 편안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담아 작업에 임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마음 자국>(이화아트갤러리, 2021)이 있으며, <Green and Gold>(픽애플레이스,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서투른 칸

40x40cm, 손지와 임피지에 채색, 2021



김수정 Kim Sujeong

(b.1977)

김수정은 파주라는 접경 지역이 가지는 경계의 긴장감 속에서도 수많은 존재들이 생성되고 점차 승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을 평면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무수한 층위를 담아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면으로 귀결되며 그 순간의 조화를 드러낼 수 있는 특징 때문이다. 작가는 매 순간 발생하는 '다름'이 평면에 중첩되어 그림과 작가 본인, 즉 '나'라는 세계가 '하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의식을 관찰하고, '나'와 반대되고 모순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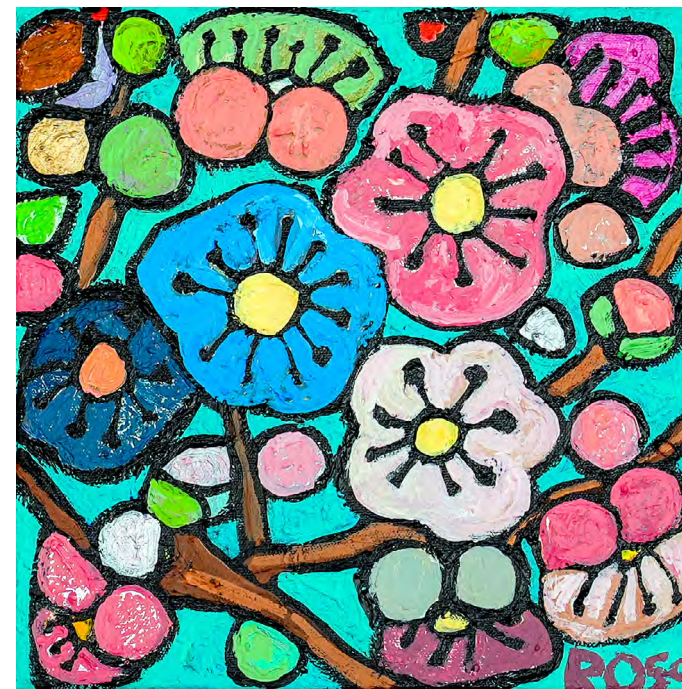


개인전으로는 <Great Paradox>(아트스페이스 라운
쑈, 2022), <重重無盡 MindPong> (H Contemporary Gallery, 2021) 등이 있으며, 박영장학문화재단, BBCN Bank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예슬은 우리 생활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꽃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반려견 몽실이와 성모 마리아, 예수를 그림의 주요 소재로 삼는다. 특히 그림의 주요 소재 중 '꽃'은 작가의 발달장애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자 작가의 작품 세계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다.

김예슬 Kim Yeosul

(b.1983)



주요 개인전으로는 <행복한 세상, 꿈꾸는 이야기>(경인미술관, 2022)가 있으며, 2022 Amazing Talent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 '드림어빌리티'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꽃들의 향연 2
60x60, 아크릴, 2022



김은숙 Kim Eunsook

(b.1978)

김은숙은 사회 구조의 비가시적 요소를 통해 공동체의 사고 변이를 조장하는 현상에 대한 시야각을 조절한다. 만들어진 시각적 틈은 다른 각도에 머물던 비선형적 경계를 시간의 접촉면으로 압축한다. 사건이 발생되기 전, 정의되지 않은 시간, 존재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예측한다. 별도로 재단되던 현실은 변화의 접점을 만나 공간에 재편집되며 서로 간의 생경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어떤 대상이 존재할 때의 감정을 두려움이라 한다면 대상이 모호해 정의할 수 없을 때의 감정이 '불안'이다. 불안이 두려움보다 불편한 이유는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방어적인 '대상'을 찾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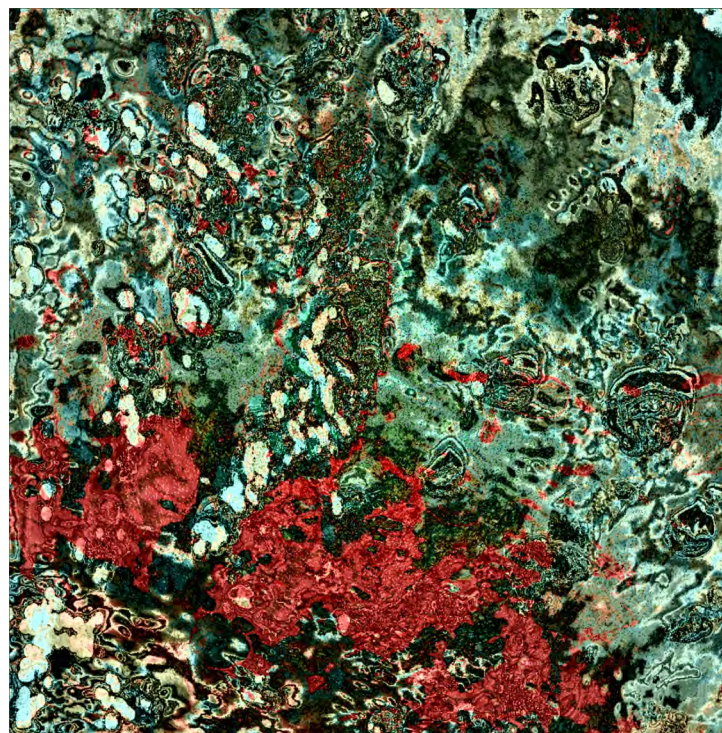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압축 신호 지표>(조명박물관, 2023), <불통 uncertainty>(김중영미술관, 2021)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등의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from uncertainty (2pcs)
각 91x116.7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김재익 Kim Jaeik

김재익은 장소 이면에 얹힌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현상을 상상과 표현을 통해, 소실되거나 훼손된 기억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작품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는 도시 사회 환경의 틀을 구성하는 특정 장소로부터 파생된 사건들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 기억들의 레이어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편입된 특정 공간의 현상을 작가가 머무르고 있는 어느 공간 좌표 위의 시점에서 삶과 환경을 기록하는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각 도시 장소에서 파생되는 집합적 기억,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구성되고 환기되는 물질-비물질 세계의 현상을 재현과 상상을 통한 혼합 표현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어떤 상실 - 어느 마을에 소생하는 기억의 틈 속에서>(북한강갤러리, 2023), <DDP 오픈 큐레이팅>(DDP 갤러리문, 2023~4), <너머에 발아하다 18.95°C>(양평군립미술관, 2022) 등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물의 마을 #1 - 강 건너 'Small Town' [마을 시냇가]
50x50cm, Digital Drawing on Archival Pigment Print, 2023



김지은 Kim Jieun

(b.1977)

김지은은 거대한 도시 풍경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제도와 법규들을 평면이나 설치 작업으로 다루며, 현대 사회의 '제도화된 풍경'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경험했던 주변 환경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고유의 장소성과 가치를 탐구한다. 개인의 미시적 삶 주변으로 축소되어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일상', 풍경'의 의미는 그의 작업에서 '땅'이라는 맥락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된다. '답사'와 '리서치'를 병행하여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는 일련의 작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눈여겨보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상의 기념비'들에 주목하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집 같은 비장소>(갤러리 시몬, 2021), <택지 개발자의 도시>(레이블갤러리, 2020)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재활용 수거일

227.3x363.6cm,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2022



김하림 Kim Harim

(b.1992)

김하림은 한국 신화와 굿에서 착안한 여러 조형 언어들을 재해석한 동양 회화를 기반으로 작업한다. 그는 굿을 진행하는 현장을 수년간 찾아다니며 무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보고 부적의 조형성과 상징을 빌려 굿의 현장감과 불의 형상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근에는 '그 모든 격렬한 시기를 지나 불이 소진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타고 없어져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순환하는 하나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치열하게 문제를 직면하여 현실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의지를 조형 언어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숫아오르는 땅 아래, 흐르는 하늘>(아트레온갤러리, 2022), <춤추는 불>(전등사, 2020) 등이 있으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전등사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불춤

140X150cm, 혼합 재료, 2019



김현하 Kim Hyunha

(b.1973)

김현하는 세계 각국의 동전들을 작업에서 주요한 시각적 대상으로 다룬다. 작은 단위의 화폐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지배당하는 거대 자본주의의 또렷한 표상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그 안에서 '과연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인가,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모든 작업이 시작된다. 그는 '동전'이라는 자본의 가장 작은 단위를 회화로 가져와 현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그의 작업은 시작된다. 고운 비단에 여러 번의 아교포수를 한 후, 비단의 앞면과 뒷면에 반복적으로 색을 입히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흔적 - 비껴간 시간과 그 후...> (아트스페이스 보안 1, 2022), <시대의 온도>(플레이스막1, 2021) 등이 있다.

PARTIA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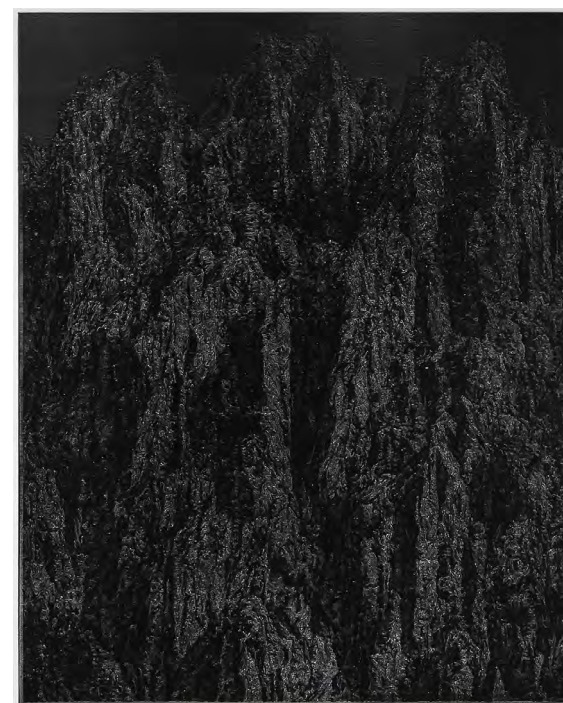
116.8x80cm, 비단에 혼합 재료, 2023



김현호 Kim Hyunho

(b.1983)

김현호는 회화 자체에 대한 메타적 접근과 한국화 재료의 개념적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다. 마티에르가 있는 흑백의 아크릴 그림 위에 '어둠 색'인 카본 블랙 물감을 도포하는 방식을 구사하는 최근 작업은 한국화의 산수화와 먹의 개념을 변형,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동양화와는 차별점을 둔다. 어둠 속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 작가와 풍경 사이에 가시광선이 사라진 곳에 어떠한 공간이 형성되고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서사가 채워짐을 체험한 작가의 경험을 시작으로 제작된 현재의 작품은 텍스트와 RGB로 환원될 수 없는 '이해'를 넘어 '보는' 감각을 살아나게 하며 더 나아가 태초의 시작, 그리고 생의 저편의 색인 검정의 내러티브를 통해 무지와 무력을 경험한 불확실한 시대에 숭고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Full or Empty>(로이갤러리, 2023), <밤에도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인영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와 BAKYONG THE SHIFT 8기(갤러리박영, 2023), 부평영아티스트 6기 중 최종 1인인 POP Prize(부평구문화재단, 2022)에 선정되었다.

산 #4

162.2x130.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3



김희연 Kim Heeyon

(b.1985)

김희연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평범한 풍경, 그리고 인간이 남긴 인위적인 흔적과 자연이 공존하는 양상을 회화로 재현한다. 대상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색감의 대비를 극대화하여 평범한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전환하며 외롭고 공허한 감수성과 이질적으로 겹쳐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인공 구조에 치여 자연이 변화되는 모습은 도시에서 흔히 목격되는 풍경으로, 자연과 인공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 와중에 드러나는 '인공과 자연이 시간을 겪어내는 방식'의 대비는 묘한 간극을 이룬다. 시간의 흔적과 무미건조한 도시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거친 리넨에 매트한 아크릴로 작업하여 화면 속 깊게 색 바랜 색감과 물성 자체에서 오는 경쾌함의 대비를 통해 외롭고 공허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김희연 개인전>(오스갤러리, 2020), <Soundless Dialogues>(아트비트갤러리, 2018) 등이 있으며,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의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희진은 아파트가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한국화 재료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 사색하고, 이후에 색채나 형태, 혹은 설치 방법에 변화를 주어 대상만의 서사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보편적 풍경이 되어 버린,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아파트의 모습을 그곳만의 스토리와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여 다양하게 풀어낸다. 모두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아파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역, 주변 환경, 사는 사람들 등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림에서 아파트의 형태는 곧고 일정한 필선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의 색채나 명암, 구도, 배치 등에는 다양한 변화를 주어 표현된다. 견고한 형태와 변화하는 요소들의 공존을 통해 다 같은 아파트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모습을,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같으면서도 불안하고 유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아파트 가변 설치>(갤러리 그리다, 2022), <아파트, 사선의 그림자>(아트레온갤러리, 2020), <far_apart>(갤러리 너트, 2016) 등이 있으며, 영은미술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희진 Kim Heejin

(b.1987)



나광호 Na Kwangho

(b.1979)

나광호는 에디션 개념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판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물에 관심이 많으며, 식물을 소재로 도감(圖鑑) 작품을 제작한다. 자연의 색감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실크 스크린 판화 작품을 출품하였고, 판화와 회화를 넘나들며 작업 중이다. 주변, 변두리, 테두리에 위치한 식물을 선택하고 재현을 통해 주목받고자 한다. 또한 그는 쓸데없는 태도, 역행과 시대착오적 마음가짐으로 감각의 충위를 옮기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福嬪圖(복음도)>(이응노의집, 2022), <겨울 호랑이 냄새>(뮤지엄 산, 2019) 등이 있으며, 뮤지엄 산,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노한솔 Noh Hansol

(b.1991)

노한솔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정된 의미와 뜻, 상징과 같이 정해져 있는 정보들을 인지하는 과정과 이러한 관점으로 본 일상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고정된 정의와 학습된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과거부터 편익과 편리를 위해 정리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는 일상을 사소하게 비틀으로써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의심 없던 일상에서 어떤 이상한 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Mr. Teddy>(공간 형, 2023), <동세근상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는 연습>(별관, 2022) 등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리혁종

Lee Hyeokjong

(b.1975)

리혁종은 예술이 실존적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의 날개'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을 상징한다면, 작가는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 맞닿아 있는 자본주의라는 현 제도와 가치 체계 너머에 예술을 통해 다다를 것을 꿈꿔왔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와 생태주의 사이의 접점을 예술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자본의 유통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물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작가는 작품과 우리 일상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일상 속에서 작가의 고민과 실천이 담긴 작품을 공유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부산물>(오픈스페이스 배, 2022), <2 Piece: 두 조각의 세계를 잇다>(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2019) 등이 있다.

“나의 이카루스는 자본의 태양과 생태주의 바다 사이를 지혜롭게 날 수 있을까. —작가노트 중

다이달로스
16×23×85cm, 길에서 수집한 폐자연물에 조각, 2021



무아리

MooAlee

(b.1981)

무(無)아(我)를 주제로 작업하는 무아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원시적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태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원주민 여인의 신체를 모티브로 작업한다. 여인의 몸은 문명 이전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본능 그대로인 꾸미지 않는 순수함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작가는 원주민들이 춤을 출 때 사람과 자연이 모두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지점이 유토피아라 생각하여 춤추는 여인이 모여 하나의 꽃이 되는 작업을 한다. 인간의 이기심, 욕망, 질투 등 부정적 감정이 없는 무(無)의 세계를 추구하며 신체, 꽃, 구름, 기타 기하학적 도형의 이미지를 조합해 무(無)의 유토피아를 작업에 담아낸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무(無)의 세상을 꿈꾸며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나의 유토피아>(스페이스 결, 2023), <FLOWERS BLOOM>(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2022) 등이 있다.

꽃이 피었습니다 7-1b
81×81cm, ceramic on wood, 2023



박소현 Park Soh hyun

(b.1987)

박소현은 이미지의 확대와 확장을 통해 보는 것과 인지하는 것의 차이를 실험하고 기존 편견들의 재구성 혹은 해체되는 지점을 다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이미지를 수십 차례 분할하고 특정 부분들을 픽셀 단위로 보일 때까지 확대하여 픽셀 형태의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색들을 지닌 픽셀들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형상들의 존재감을 인지할 수 있다. 각 드로잉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주변 드로잉과 서로 결합하며 또 다른 이미지들을 창출하고 확장해 나간다. 작가의 작업 과정은 이미지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관객은 확대된 이미지를 먼저 마주한 후 세세한 이미지들을 보며 감상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간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통해 보는 것과 인지하는 것의 차이를 실험하고, 더 나아가 기존 편견들의 재구성 혹은 해체되는 지점에 집중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비슷한 것들>(감성경도2020, 2021), <XXX>(어라운드 울산, 2020) 등이 있으며, 울산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New Pixels 1

55 x 76 cm, 종이에 수채, 과슈, 2021



박일종 Park Iljong

(b.1980)

박일종은 현대 사회의 부산물로서 공존하는 인공 물질의 특성을 작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전환시킨다. 투명한 아크릴 글라스 뒷면에 그려진 회화는 전통적 회화가 드러내는 표면의 물질성을 매끈한 디지털적 화면으로 반전시키는가 하면, 스티로폼과 같은 재료를 부풀리거나 변형시키면서 인공 재료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자신의 조형적 확장성으로 연결시킨다. 또한 작가의 기억 속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카피-프린팅' 하는 프로젝트(Copyman 2013)를 수행하거나, 고장난 복사기의 에러를 작품의 고유한 결과물로서 수용하는 등 여러 실험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자기 복제, 원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획득된>(생겐갤러리, 2023), <하이라이트>(쿤스트페어라인 레클링하우젠, 2014) 등이 있으며, 독일 스파가세은행 힐트롭 지점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Hi-Light 0123 M
100x100cm, 플렉시글라스 뒷면에 아크릴, 2023



박지수 Park Jisoo

(b.1990)

박지수는 풍경을 주제로 일상적 관계로부터 오는 다양한 관계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30대 초반의 청년, 여성이라는 사회적으로 겪는 정체성의 갈등, 존재적 대상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불안과 고민들을 작품에서 다룬다. 실존적인 풍경을 화면에 재현함으로써 공감의 장이 되는 다양한 전시에 참여 및 진행 중이다. 보편적인 일상에서 포착되는, 버려지고 소외된 자연이 생존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상실된 존재의 가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기록하고 재현한다. '상실, 소외, 고립으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근원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물음들을 있는 그대로의 시선을 통해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자연적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풍경을 정의한다. 또한 정체성에 대한 수동적인 맥락으로부터 오는 정의들에 대한 고요한 저항을 표현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Empty Landscapes>(유중아트센터, 2020), <혼자가는 먼 집>(갤러리 도스, 2018) 등이 있으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경기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 중이다.



백종하 Baik Jongha

(b.1989)

백종하는 어릴 적부터 한자에 크게 흥미를 보이면서 외할아버지께 서예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그리기에 몰입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의 그림 작업은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글을 써 내려가듯 대상을 속도감을 가진 단정한 선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인 그는 영상이나 이야기 속의 동물이나 주변 환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식물, 만화 주인공 등을 즐겨 그리는데, 자신이 보고 느낀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담아내고자 한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세계를 존중받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시연 활동과 더불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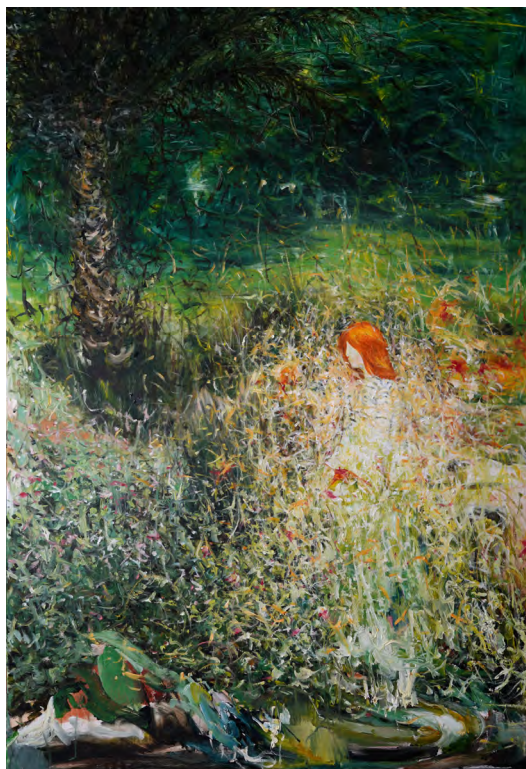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종아서 그려 봄>(봄갤러리, 2021)이 있으며, <설레는 동행전>(중랑아트센터, 2023), <인천 아시아 아트쇼>(송도컨벤시아, 2022),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범진용 Beom Jinyong

(b.1977)

범진용은 꿈속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풍경 등의 희미한 이미지를 기억을 더듬으며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거나 비슷한 사건을 재조립하여 재현한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상 속 풍경 또는 버려진 장소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풀들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작품들을 그려낸다. 그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들을 캔버스에 증폭시킴으로써 만져질 듯 생생하게 대상을 부각시킨다. 그의 최근 작품에는 가족, 지인들이 등장한다. 그저 평범한 주변인들이며, 놀랄 만한 사건도, 거대한 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겹겹이 쌓인 일상 중 한 장면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찰나 속의 인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는 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이다. 그 기억들이 과장되고 엉뚱해도 한 명 한 명 빛나고 특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잠 못 들고>(리각미술관, 2019), <빈 곳에서의 폭동>(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8) 등이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청주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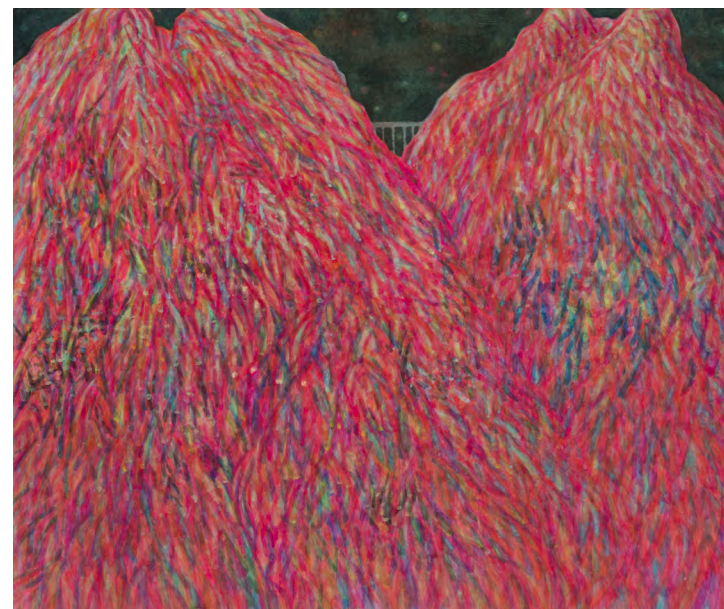
승원
163x112cm, oil on canvas, 2022



서민정 Seo Minjeong

(b.1982)

서민정은 양가적인 힘과 상충하는 의미 사이에서 그 거리감을 인식하고, 이 둘의 연결과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작업한다. 초기 작업에서 소통에 대한 열망과 불통으로부터 비롯되는 소외를 다뤘고, 이후 다른 두 대상 사이의 거리감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독립된 개체를 이야기하며 고립과 공허의 정서에 주목하였다. 꺼지는 불과 활활 타오르는 불, 과거의 강렬했던 경험과 지금의 어렵פות한 기억, 멀다고 느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밀착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경험, 삶과 죽음의 관계와 같은 것들이 작업을 풀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시대 개인이 느끼는 내·외부의 불안과 부서지고 구축하는 서로 다른 힘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자연과 인물, 사물을 재구성하여 우리가 속한 세계의 순환하는 흐름들에 대해 고찰한다. 그 흐름들이란 자연이 품고 있는 기운뿐만 아니라 인연으로, 감정으로, 관계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비가시적인 경험들이다. 동양화 전통 재료를 통한 회화에 주력하며 간헐적으로 입체, 설치 등의 프로젝트 작업을 동반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땅과 불꽃>(공간시은, 2023), <잉겔불과 감부기불>(갤러리뎀, 2021)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다리
60.6x72.2cm, 정지에 분채, 2021



서해영 Seo Haeyoung

(b.1983)

서해영은 전통적인 조각과 현대 미술의 접점에 대해 고민하면서 개인의 구체적인 조건들과 삶의 경험들을 반영하는 '과정-중심적 조각'에 대한 작업들을 시도해 왔다. 그는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작가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관습적인 조각의 방법론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작가 스스로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과 예술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예술의 방법론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대 미술의 장에서 조각이 어떻게 해체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조각의 근본적인 요소인 '입체와 공간'을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조각가를 위한 생츠퍼리1-바위 옮기기>(서울교육대학교 샘미술관, 2022), <보이지 않는 경계 잇기>(김희수아트센터 아트갤러리, 2020) 등이 있으며, 서울대학교미술관, 안양문화예술재단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바위 옮기기(전시전경)
가변크기, 석고/레진/에폭시/청동/영상, 2021



신영미 Shin Youngmi

(b.1979)

신영미는 삶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의 이미지들로 상황의 스토리를 만들어 그 뉘앙스를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모호하고 낯설면서도 동시에 자유와 통찰이 있는 순간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내러티브로 이미지를 그린다. 본질이라 정의하였던 관념과 이미지를 벗겨내는 곳, 애매한 경계에 서서 바로 본 내면의 풍경을 그린다. 모든 삶의 스토리가 다르지만, 온전히 각자의 존재로서 견뎌낸다면 삶은 유일한 생명으로 흐르고, 존재만으로 무한하며, 독자적 아름다움이 있다. 끊임없이 창조적인 삶에 대하여, 이러한 삶의 모호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Sweet, Sweet, Lonely, Sweet>(토마스콘 갤러리, 2011), <Blooming Soul, Blooming Spirit>(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2008)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Living Bouquet 1
73x61cm, Acrylic on Canvas, 2023



심효선 Sim Hyosun

(b.1980)

심효선은 세상과 개인이 맞닿는 접점, 특히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에 주목하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작가는 주변을 탐색할 수 있고 상주하는 장소에 속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의 장소의 상실과 이용자들의 관계 부재에 주목하여 '비장소성'의 균열이 드러나는 회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장소의 공간에서 작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기존의 풍경을 지워내고 새로운 장면을 창출하며 그 자리에 온전한 자신을 채우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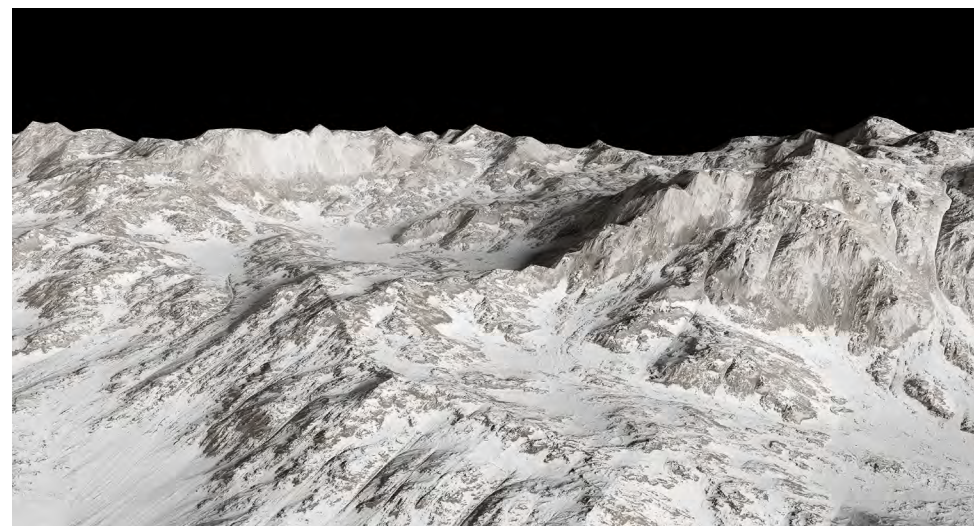
2023년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오늘의 장소가 어제와 같을 수 없고>에서 신도림역 주변의 양면적 풍경을 통해 '비장소'의 공간에 사적 장소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전시하였고, 2021년 959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전혀 다른, 하지만 다를 바 없는>에서 스튜디오 창밖의 한 장면을 매일 다르게 반복하여 그린 115장의 드로잉을 선보였다.



양승원 Yang Seungwon

(b.1984)

양승원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실과 가공의 경계를 흐르는 유사 이미지로 인식론과 사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마주한 상황이나 풍경을 인식하는 과정, 당대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며 당연시 여겨지는 인식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확장된 개념으로 실재와 허구의 접점이 만들어 내는 이질성을 포착하기도 하고, 자연과 모방의 간극에서 볼 수 있는 물질성의 차이, 지역과 장소의 표피적 이해에서 발생한 맥락이 거세된 현실의 풍경에 의문을 가지며 작업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이미지의 인식 과정과 경험의 과정을 의심하고 제시한다. 또한 사진이 동시대 미술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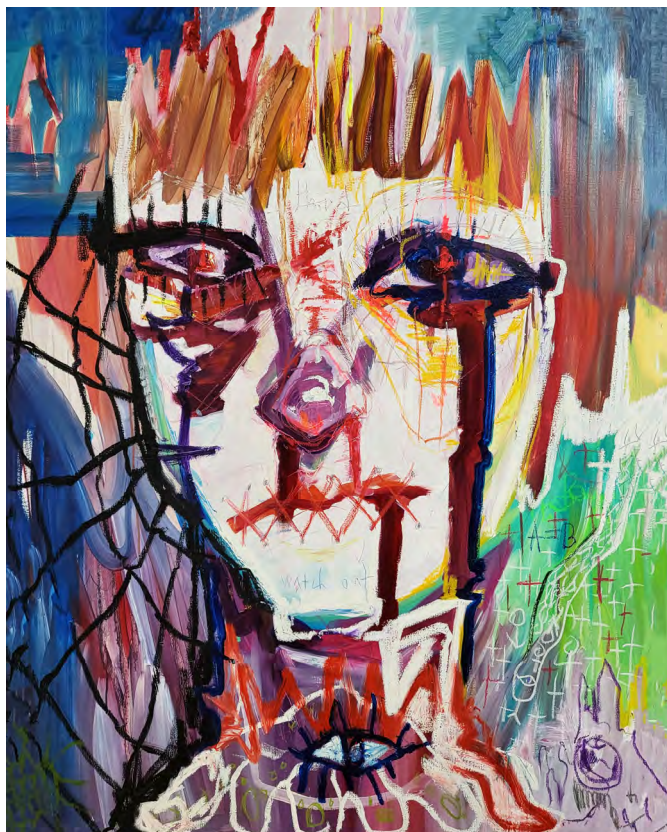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달여쓰기>(N/A, 2022), <글림스>(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2021), <커버드 모멘트>(하이트컬렉션, 2019) 등이 있다.



어형진 Aeu Hyungjin

(b.1996)

어형진은 평면 회화를 주된 매체로 드로잉 선의 시원한 느낌과 더불어 유화의 중첩된 물성을 사용해 깊이 있는 화면감을 가지고 현대 사회인들의 고충과 고뇌,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대로 스쳐 지나가는 개개인의 감정을 토대로 복합적인 이야기를 화면에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감정이 복합적이며, 다양성을 지니고 시공간 속에서 빠르게 흘러 뒤섞임을 포착하여 흘러가는 현실 속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주제를 모아 해학적인 이야기로 재탄생시켜 다양한 매체와 색감으로 표현한다. 그는 작품 속 뭉뚱그려진 형태를 관람자 스스로 해석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응시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지기를 바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Still Alive>(온수공간, 2022)가 있으며, <각자의 숨>(울미아트스페이스, 2022),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고색뉴지엄,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1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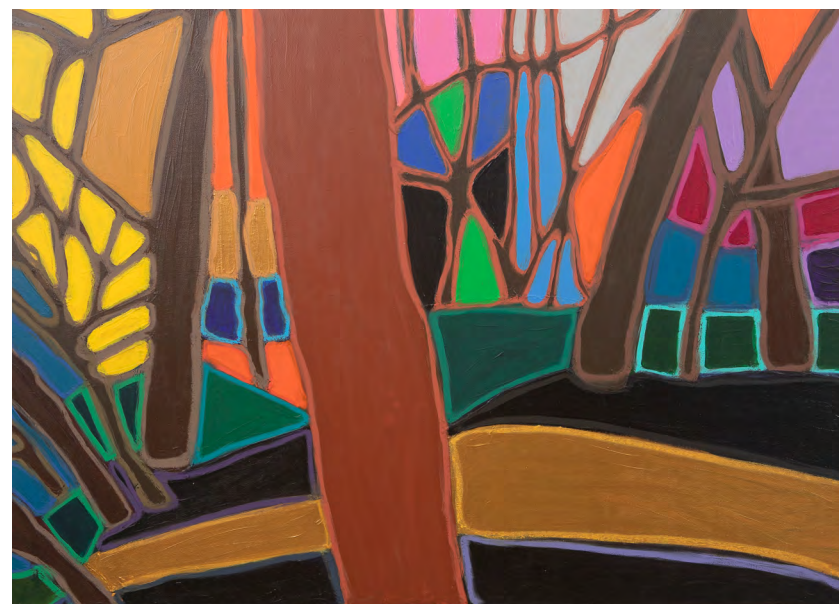
145.5x112.1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연호석 Yeon Hosuk

(b.1996)

연호석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과 자연물을 보며 그때마다 느끼는 작가의 마음을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과 형태로 재구성하여 따뜻하고 울동감 있는 형태로 풀어낸다. 복잡한 사물의 특징을 선으로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과감한 색감으로 개성을 표현하며, 불규칙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선과 색감, 그리고 독특한 질감의 표현을 통해 조화롭게 작품을 완성한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빛과 색의 장면들을 발견하여 본인의 생각과 접목시켜 캔버스에 표현한다. 그의 작품 안에는 자신감과 즐거움이 어우러져 있으며, 보는 이들도 색채의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숲 속에 빛>(밀알미술관, 2022), <노래하는 나무들>(서리풀 휴 갤러리, 2021) 등이 있으며, <제16회 세계 자폐인의 날 전시>(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2023), <드림어빌리티>(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숲 속에 빛 1

65x91cm, Acrylic, oil pastel on canvas, 2022



오자현 Oh Jahyun

(b.1990)

오자현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어떤 오브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직접 겪은 경험들에서 영감을 얻어 소설을 쓴다. 재현된 회화들은 소설 속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암시한다. 작가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증거, 증인이 없는 사건의 한 장면 같은 풍경 회화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인공의 속내가 여실 없이 드러나는 소설과 다르게, 모호한 장면들의 회화는 숨겨진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작가는 관람객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숨겨둔 주제를 찾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화와 소설, 영상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서로 상응하고 이야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실험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삼켜진 초록>(행궁길갤러리, 2022), <그린골드 작업실>(에스팩토리, 2021) 등이 있다.

혼자 보는 풍경
130x193cm, oil on canvas, 2022



이세준 Lee Sejun

(b.1984)

이세준은 과감한 색채의 사용과 비일상적인 시각 요소를 장면 속에 개입하고, 이미지와 물질 자체를 병치하는 등 여러 방법론을 통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독창적인 회화를 구현하고 있다. 작가는 세상을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며 상충하는 다의적인 유기체로 인식하며, 회화작업은 그가 이해한 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그리기의 형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로 여기고 있다. 거대한 세계 속에 던져진 관찰자의 시선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점의 그림을 연결하여 회화를 확장하거나 다양한 조형적 요소의 대비를 통해 충돌하는 화면을 만든다. 작가는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SeMA(5기)에 역대 최연소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제1회 KSD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마침내 너와 내가 만나면>(스페이스 윌링앤달링, 2023), <스페이스 오페라>(KSD갤러리, 2020) 등이 있다.

Meta-fiction 메타-픽션
610x807cm (18pcs), 캔버스와 린넨 위에 유화와 아크릴, 형광안료, 2018-2022



이소 Lee So

(b.1991)

이소는 도시의 시스템을 작은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더 큰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모듈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작가가 바라보는 도시는 다양한 기능과 의도에 따라 여러 모듈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도시의 보편적 풍경을 만들어 내는 펜지꽃이나 조경, 보도블록 등 작은 조각들을 관찰하고 수집하여 연이어지며 나타나는 도시풍경을 표현한다. 특히 펜지꽃을 작업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데, 보편성 안에 나란히 웃는 펜지꽃의 미소를 통해 현대사회를 우의하고자한다. 작가는 도시를 만들어 내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크스크린, 미디어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의 시스템과 작업의 방식을 나란히 두고 작업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CITY OF CMYK>(예술공간 의식주, 2023)가 있으며, <Re:boot 로컬센터話>(부천아트벙커B39, 2023), <한평의 작업실>(경춘선숲길 갤러리,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Happy pansy dot (Yellow)
30x30cm(원형), silk screen paper collage, digital printing, clay, 2023



이정옥 Lee Jeongok

(b.1956)

이정옥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듯 표현한다. 시간의 손때가 묻은 고가구, 친구 같은 고양이, 이름 모를 잡풀들과 꽃들, 나비와 텃새 등 소박하고 꾸밈없는 대상은 작가에게 편안함과 따스함을 준다.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어떤 면은 세밀하게, 어떤 면은 단순하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개성 있는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소박함에서 오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작가는 <안양시청 초대전>(안양시청, 2023), <빛나고 아름답게>(국회의원회관,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제31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또한 경기도청, 안양시청,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우리들의 축제
90.9x72.7, Oil on canvas, 2022



이정혁 Lee Jeonghyeok

(b.1994)

이정혁은 실제 물건의 사용자, 소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의 질감과 부피감을 직접 느끼고 재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치 수집가처럼 사람들의 삶에 묻어 있는 물건을 캔버스 안에 담으며, 사물과 그 주인의 관계성에 대해 작가가 집중한 정서를 표현하고자 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개별의 내러티브를 지니게 되며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읽는 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작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물과 사람 사이의 언어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데, 이는 스토리가 생략되다시피한 클로즈업 구도와 회색 톤이 지배하는 색채의 정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작업은 정물화나 풍경화라는 장르에 포함되지만, 대상이 아닌 정서를 재현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푸른소음>(창생공간 재미, 2023)이 있으며 <피드백#4>(아팅갤러리, 2023), <Waiting room>(수치갤러리,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Almost used toothpaste
24.2x33.4x2.9cm, Oil on canvas, 2022



이주연 Lee Juyeon

(b.1990)

이주연은 평소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드는 생각과 감정을 글과 이미지로 남기고, 그 조각들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생겨난 풍경은 당시 공간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투영된 곳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들을 사진 콜라주로 재구성된 풍경에 우회적으로 담아낸다. 풍경 조각들의 반듯한 경계면은 서로 다른 각도로 얹히며 비정형적인 형태와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발생시켜 내면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데, 이러한 정돈된 풍경 조각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하학적인 집합체가 된다. 작가는 고립되어 있는 듯하지만 서로 얹혀있는 풍경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넨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시선의 조각들>(스페이스 겐, 2022), <외딴 점이 사는 외딴 섬>(리각미술관, 2022), <### : 안과 바깥>(갤러리너트, 2020) 등이 있다.

공터
72.8x91.2cm, acrylic on canvas, 2022



이지현

Lee Jihyun

(b.1993)

이지현은 자폐성 장애 작가로서 디지털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였으며, 어린 시절 소통을 위해 시작한 그리기가 다양한 미술 경험을 통해 수채화, 일러스트, 유화, 아크릴 등 여러 표현 영역으로 확장되는 성장기를 보냈다. 작가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는 주제는 일상, 여행, 자연, 인물로 이동하고 있다. 작품 속 동화, 애니메이션의 인물들은 작가가 그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역경을 딛고 꽃을 피우는 선인장의 모습에 스스로를 투영하며 선인장 시리즈를 작업한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당당함과 자신감, 희망의 메시지를 밝은색과 섬세한 선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그림은 '쉽'과 '호흡'이 있는 작가의 세상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이지현 개인전>(아리수갤러리, 2020)이 있으며, <광주에이블아트위크>(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022), <한국여성장애인미술협회창립기념 초대전>(갤러리 라메르,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형균

Lee Hyungkyun

(b.1972)

이형균에게 그림은 작가의 역사에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평소의 불안한 마음도 그림을 그릴 때면 안정을 찾기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면을 듣는 하나의 훈련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그의 희망 사항을 표현하는데, 주로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는 심경을 기차가 달리는 풍경, 사계를 담은 산등성이, 기억에 남아있는 꽃들을 주제로 나타낸다. 이러한 풍경들을 작가만의 색으로 표현하며, 작품을 통해 본인 스스로 느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한다. 그에게 그림이란 영양제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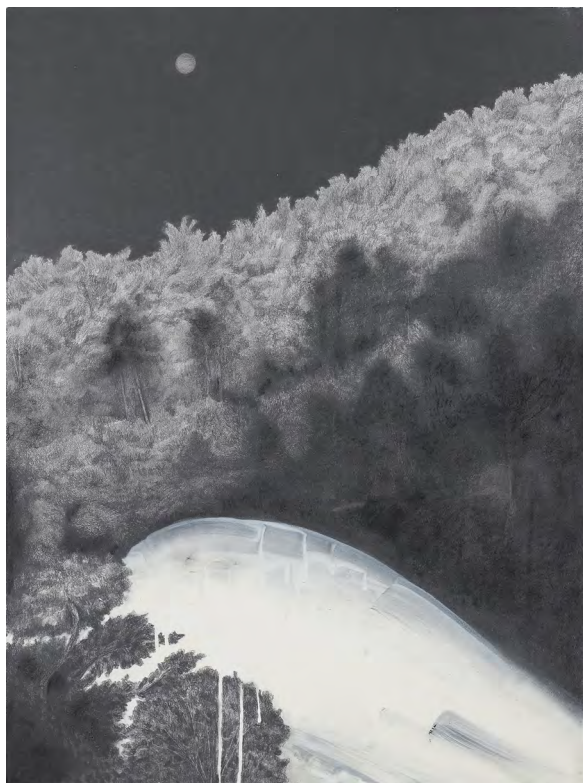


<설레는 동행전>(경춘선숲길 갤러리, 2023), <수리복지관초대전>(봄갤러리, 2023), <장애인창작아트페어>(양재aT센터,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 제31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효주 Lee Hyoju (b.1980)

이효주는 사물을 통해 깊이 감춰졌던 기억이 꺼내어지고 감정이 드러나는 경험을 드로잉으로 연결시켰으며 주로 연필과 과슈 등의 재료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는 평범한 사물이 가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들과 다양한 기억, 감정, 욕망 등을 끊임없이 교류하고 생산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형체 없는 불안함의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아주 평범한 대상들이 안정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일상에서 수없이 지나친 평범한 사물들을 캔버스에 담는다. 작품 속 대상인 사물들은 무심한 시선 속에서 의미 없이 놓여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힘을 가지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를 통해 평범한 순간과 사물이 주는 울림에 대해 주목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무심한 순간>(H Contemporary Gallery, 2020), <Around you>(갤러리다리, 2016) 등이 있으며 <love&respect>(AK갤러리, 2019)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임승균 Lim Seungkyun (b.1984)

임승균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방식으로 실험한다. 작가는 일상 속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서 만나는 물질과 현상, 상태 등에서 '사건'을 구성하는 가능성의 깊이를 발굴해 내기 위해 틀을 깨고 그만의 방식으로 기발하고 다양하게 실험한다. 하지만 '세계 속 노이즈(Noise)'에 비유될 만큼 '단절'과 '파편'에 기반한 그의 작업은 예술적 상상을 통해 일상의 연속성을 끊어내고 단면들을 들여다보게 하거나 세계를 읽는 대안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새로운 감각을 사용해 세계와 소통하려는 시도들이며, 작품에 의미를 채우기보다는 상상의 여지를 만들어 새로운 교감 지점을 찾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강이 구부러져, 나는 너를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8)가 있으며, <Printf ("Human odyssey")>(천안시립미술관, 2022), <넥스트코드>(대전시립미술관, 2021)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임준영 Lim Juneyoung

(b.1976)

임준영은 샌프란시스코 AAU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뉴욕 SVA MPS Digital Photography에서 석사를 졸업한 후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동강국제사진제 국제사진공모 선정작가로 뽑혔으며, 미국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 건축사진 공모전에서 걸쳐부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되었다. 특히 Like Water(흐르는 물처럼) 시리즈는 사람들의 기운을 앗아가는 듯한 거대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발산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흐르는 물로 표현하여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건조한 이미지의 도시와 생명력을 표현하는 물이라는 두 요소의 조화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을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에서 2인전을 가졌고,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그 너머에. 늘(Steps to Nature)>을 열었다. 중국 제남(Jinan) 국제 사진 비엔날레에 초대되어 참여했고, BMW 포토 스페이스에서 개인전 <늘, 그러하듯(the delightful breeze)>을 열었다. 서울하우징랩과 '안녕! 오늘 서울'을 기획하고 전시에 참여했다.

Like Water 01
102x75cm, archival pigment print, 2008



임철민 Im Cheolmin

(b.1988)

임철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그의 회화는 자신을 명백히 인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본질에 기반한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개인과 세계의 형태와 그 관계를 중첩되고 어두운 풍경으로 어렴풋이 드러내는 회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모호한 풍경으로 비유하며, 존재하지 않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의 모든 작품이 '나'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은 실존의 최소 단위인 '나'가 희미해진다고 느끼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대부야행大阜夜行>(북촌전시실, 2022), <창백한 푸른 빛>(갤러리 3안, 2020)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 경기도미술관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계(system) 3
97x193.9cm, 정지에 수록, 2022



장양희 Chang Yanghee

(b.1976)

장양희 작가는 신체를 소재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의 작업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작업에서 주요하게 보이는 조형적 특징은 중첩과 중층구조로 인한 흔적의 가시화이다. 이는 인간은 타자와 상호관계를 통해 존재하며, 타자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작가의 관점을 드러낸다. 방법적으로는 중첩된 터치나 붓질 또는 레이저 잉크 레이빙과 반투명한 재료를 이용한 간접 표현의 결과로, 새김과 지움의 행위가 중첩되며 중층화된 화면을 이루어 흔적과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흔적들의 겹으로 이루어진 인물들은 비결정적인 인간의 존재를 상징하며 이는 공허와 고독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가는 그림자와도 같은 비실체적인 형상 또는 소멸되는 듯한 인간의 이미지들을 통해 이 시대의 인물들이 가진 근원적이고도 보편적인 정서인 불안, 허무, 고독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기억의 창>(씨티갤러리, 2021), <군중속으로>(갤러리치유, 2019) 등이 있다.

CROWD #57

45.5x53cm,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2023



전소영 Jeon Soyoung

(b.1984)

전소영은 주로 풀과 나무, 산과 물 등 자연을 소재로 풍경에 대한 개인의 다층적 체험을 회화로 표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의 풀' 시리즈로 서울 도심의 낮고 작은 풀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파주로 이사한 뒤 땅에 서린 역사와 생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것을 그림에 녹여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의 작업에서 꾸준히 천착해온 자연이라는 소재는 단순히 피상적인 상징이라기보다 개인의 존재를 투영해 사유를 이끌어 내는 응시(contemplation)의 대상이다. 작가는 그리기의 과정 속 오감적 교감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고 있다. 모든 풍경은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작가는 풍경을 보고 들으며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을 통해 이에 대해 사유하는 지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FIELD>(서울교육대학교
샘미술관, 2022), <아미의 작가들>(아미미술관,
2020) 등이 있다.

이아지고 겹쳐진

60.6x72.7cm, oil on canvas, 2022



전은진 Jeon Eunjin

(b.1985)

전은진은 캔버스나 종이에 느슨한 재현의 방식으로 동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자리 풍경을 표현한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물이 뒤섞여 시각적인 충돌을 만들어 내는 현장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한다. 이를 평면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첩하여 다듬는 방식 보다 붓의 궤적이 드러나게, 물감의 뭉침과 자국을 그대로 내 버려 두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회화의 유희적 면모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다. 작가에게 풍경의 범위는 직접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범위까지이며, 자연과 교감하는 무해한 취미를 통해 장소와의 연대를 갖는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호기심, 물감이 만들어 내는 생생한 색상과 촉감 등을 작업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무해한 헛걸음>(행궁길갤러리, 2023), <초록파편으로>(갤러리 소소, 2022), <열, 틈, 조각>(소금나루 작은미술관, 2020)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정정호는 자연이 가진 미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숨은 미묘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생의 흐름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또한 지역의 개발이나 변화로 인해 드러나는 도시의 민낯과 구조를 아카이브 사진의 형태로 제시한다. 최근에는 지역에 숨은 설화나 민간 토속신앙을 리서치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어떻게 포착하고 재구성할지에 관해 관심이 있다. 주변부의 장면(Peripheral Scene)은 한 도시를 관통하는 천을 따라 주변에 피어난 들풀을 기록한 사진 작업으로, 작가는 잡초를 통해 사회 안에서 숨어 있는 존재들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비추고자 한다.



개인전 <매그놀리아>(BMW Photo Space, 2022)를 비롯해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2), <보존과학자 C의 하루>(국립현대미술관, 2020), <SeMA 신소장품 멀티 액세스 4913>(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19)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정정호 Jung Jungho

(b.1981)



정주희 Chung Juhee

(b.1985)

정주희는 동시대의 재난과 일상의 위기를 살아내는 생의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식물을 화면의 중심에 둔다. 특히 2020년 여름, 50일간의 호우 중 아이를 출산하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육아 경험은 재앙의 풍경을 마주하는 작가의 시각을 증폭시켰고 이후의 작업들을 통해 홍수로 범람한 강가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푸르거나 마른 초목이 엉켜 있고 노란 강물에 잠긴 버드나무 군락이 시간을 이기며 보여주는 미려한 움직임들은 재앙의 일상을 살아내는 생의 태도를 재현한다. 면천에 수채를 주로 사용하여 안료를 중첩하고 거둬 지워내며 그리는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적인 현상 가운데 생의 의지와 승고를 드러내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호우 2악장>(리각미술관, 2022), <Rain Walker>(경민현대미술관, 2021), <호우>(space xx, 2021) 등이 있다.



최경아 Choi Kyungah

(b.1985)

최경아는 떠난 장소, 혹은 오고 가는 공간에서 감각하고 경험한 풍경, 사건, 사람을 관찰하며 그것을 직관적인 페인팅, 드로잉, 장소 특정적 작업, 글 등으로 표현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특정 인물을 통해 작가의 잠재의식 속에서 출현한 사건이나 풍경을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표현한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가로지르는 어떤 불확실하고 모호한 시공간을 그리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 종결된 감각과 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당신에게 보내는 A Letter>(갤러리반크, 2021), <남겨진 풍경>(갤러리뫼, 2020), <지리-심리 보고서>(대구예술발전소, 2018) 등이 있으며, 성남큐브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최규연 Choi Kyuyun

(b.1990)

최규연은 그림을 통해 도시의 파편적 단상을 사유하고 기록한다. 작가는 도시에서 이동하면서 풍경을 관찰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며, 흔들리는 손잡이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에서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풍경들은 관찰자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지만 풍경은 바뀐다는 특징을 가진다. 작가는 일상에서 가변적인 풍경을 수집하고 표현하며,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풍경들을 그리면서 자연, 문명, 인간 같은 모든 것을 사유한다. 그가 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무한한 상상의 공간이 되며, 관찰하고 상상한 것같이 시각화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작품 활동의 모티브가 된다. 현재는 '작은 풍경 미니어처 시리즈'를 제작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로드사이드>(갤러리 인, 2022), <깜빡: Here and There>(상업화랑, 2021), <생각하는 원숭이>(매홀창작스튜디오, 2020) 등이 있다.

움직이는 관찰자

60.6x72.7cm, oil on canvas, 2022



최은경 Choi Eunkyung

(b.1970)

최은경은 그림이란 유형화되지 않은 꿈의 판타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회복에 대한 새로운 열망의 예감, 즉 '구체적 꿈꾸기'를 그리기의 '붓질'로 가시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정주민도 여행자도 아닌 입장에서 바라본 지방 소도시 외곽을 풍경의 비(非)풍경적인 관점으로 작업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군포에 정주하여 보편적 정서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본, 봄직한 삶의 정경이나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작가는 그의 작품이 꿈속 풍경 혹은 찰나의 팔랑임처럼 잠깐의 스침을 계기로 표면에 일렁이는 되비침이 되어, 허름한 일상의 틈에서 비루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마음까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보통의 의미>(갤러리뎀, 2021), <낮빛>(나무화랑, 2019)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진도에서의) 선달그림

130.3x193.9cm, Oil on canvas, 2018



최진희 Choi Jinhee

(b.1972)

최진희는 그림을 통해 장애를 겪는 아픔 속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다. 작가는 섬세하게 색을 입혀 막 피어나고 만개하면서 사랑스러워지는 자연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다. 아름다움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와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작가는 그림을 통해 본인의 세계를 뛰어넘어 더 밝은 세계를 꿈꾸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오는 작품은 작가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며, 그림에서 나타나는 희망과 신뢰, 환희가 작품의 매력이 되기를 바란다.



<설레는 동행전>(경춘선숲길 갤러리, 2023), <수리복 지관초대전>(봄갤러리, 2023), <장애인창작아트페어>(양재aT센터,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최태훈 Choi Tae-hoon

(b.1982)

최태훈은 <형태는 형태를 따른다>(스튜디오148, 2018)를 시작으로 DIY 제품의 유닛을 재구성한 조각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살(SAL)>(오시선, 2021)이라는 전시와 동명의 연작을 통해 기존의 방법론에 매스(mass)가 붙으면서 소조의 맥락이 개입하고 있다. 기성품을 형태적으로 독립시켜 오던 조각들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해방된 사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 작가는 기성품을 기능적 원리에 어긋나게 재구성하고 조합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최적의 상태로 고안해 낸 제품의 형태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받아들이고, 우연적 필연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입체 형상을 만든다. 그의 작품은 제품의 기능 혹은 디자인에 담겨있는 당대의 사회적 함의와 미술사에서의 사물의 맥락을 동시에 끌어와 뒤섞거나 양쪽 모두를 우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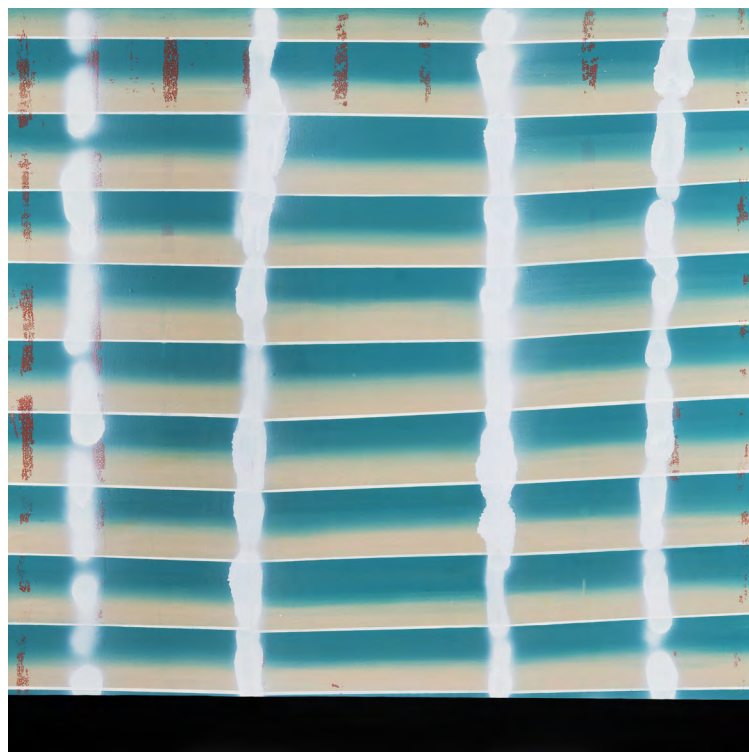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필드(FILD)>(P21, 2023), <우드 타입>(GCS, 2022) 등이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하지인 Ha Jiin

(b.1989)

하지인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주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물감 이외에 스프레이 페인트, 흑연, 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사용하여 여러 레이어를 쌓아 감으로써 작품에 드로잉적 요소를 가미한다. 종종 두 개의 캔버스를 하나의 작업으로 완성시키는데 이를 통해 보다 확장된 공간감을 가질 수 있다. 캔버스 위에 반복되는 스트로크는 패턴을 만들고 그 행위는 작가 자신에게 하나의 명상처럼 안정감을 준다. 반복되는 선들과 칠은 무의미한 듯 권태로워 보이지만 묻히기보다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가며 작가 본인이 과정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30X302>(학교재 아트센터, 2022), <One, Two, Three, More>(갤러리 도스, 2019) 등이 있으며, <Abstract Mind>(CICA 미술관, 2019), <간헐적 위치 선정>(아라리오갤러리, 2012)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한부열은 30cm 자를 이용하여 온 마음을 그려내는 국내 1호 자페인 라이브 드로잉 작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며, 전업 미술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1세대 자페 미술 작가이다. 작가는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해맑게 표현하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꺼내보는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로 인물 위주의 작품을 만들어 내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터치를 만들어 내거나 디테일을 만들어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완성한다. 또한 밑그림 없이 단번에 그리는 작가의 특성상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드로잉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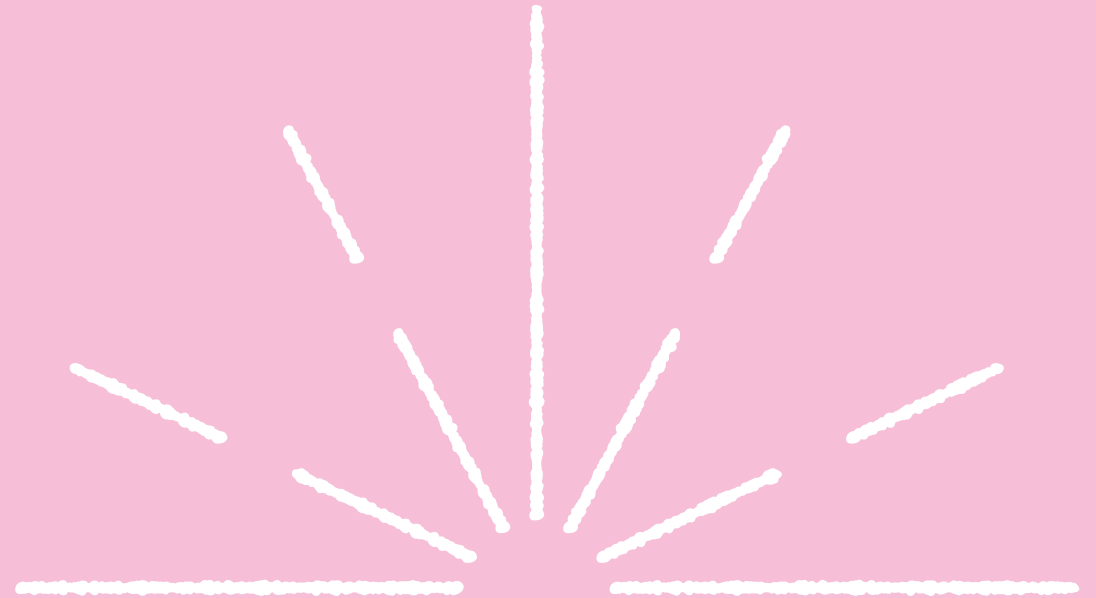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Let's go with HBY>전이 있으며, <빛나고 아름답게>(국회의원회관, 2023), <어울림 속으로>(청와대 춘추관, 2022)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김찰청,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 여러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한부열 Han Booyeol

(b.1984)

협력사업자 및 제휴사업자



갤러리 끼 GALLERY KKI

갤러리 끼(구. 스튜디오 끼)는 아트디렉터이자 배우인 이광기 대표가 2017년 파주시 문발(文發, 문화가 피어오르는 곳)에 설립하였으며, 2022년 용산에 두 번째 공간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온라인과 라이브로 운영되고 있는 끼 옥션과 과감한 전시 기획 등, 국내 미술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진작가들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개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갤러리 끼는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여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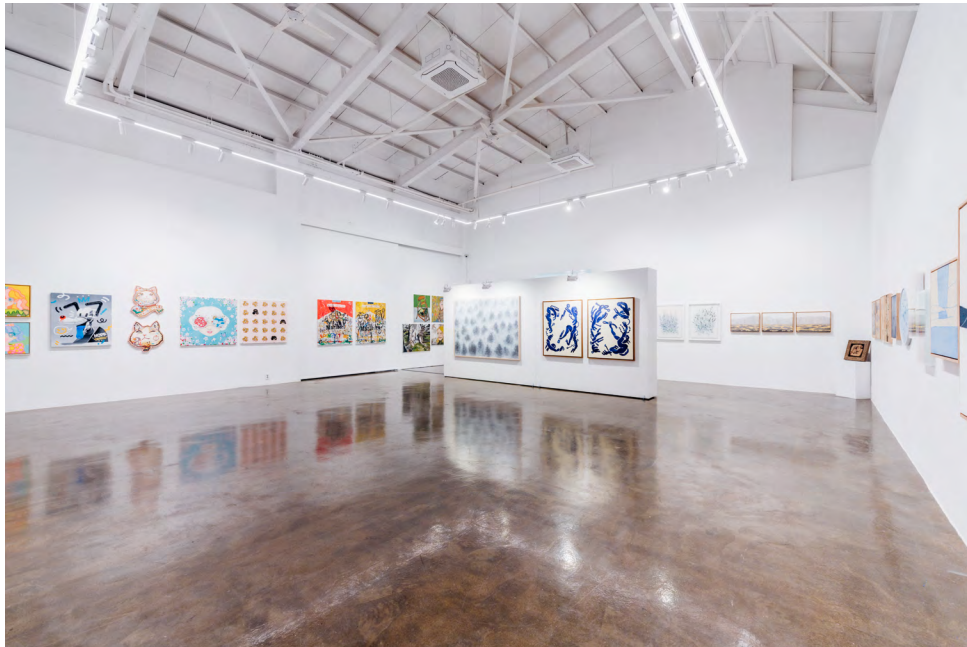
파주: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21-2

서울: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23길 24-2

031-8071-8822

gallerykki.com

studiokki@daum.net



주식회사 아트플레이스는 한국 현대미술 프로모션을 목표로 2011년 설립되었다. 미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국내·외 전시, 학술심포지엄, 아트페어, 출판 등 다양한 플랫폼의 기획 및 컨설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콕국립뮤지엄X국립중앙박물관 특별 한국관>, <Korea Cubically Imagined>, <CONNECT, BTS 서울전>, <업클로즈>, <ART 369> 등의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전시 전략, 운영, 섭외, 홍보, 관리는 물론 아트 콜라보레이션과 미술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신촌로 89

02-567-6070

artplace.co.kr

artplaceseoul@naver.com



칸 KAN

칸 KAN은 2005년부터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미술 작품을 기획, 관리해온 미술품 관리 전문회사이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부터 엔씨소프트 같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미술소장품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검수단 운영사업을 통해 5천 여 점의 공공미술 작품을 상태 조사하였고 미술작품 검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20, 224호

02-536-7195

kanarts.com

kanarts20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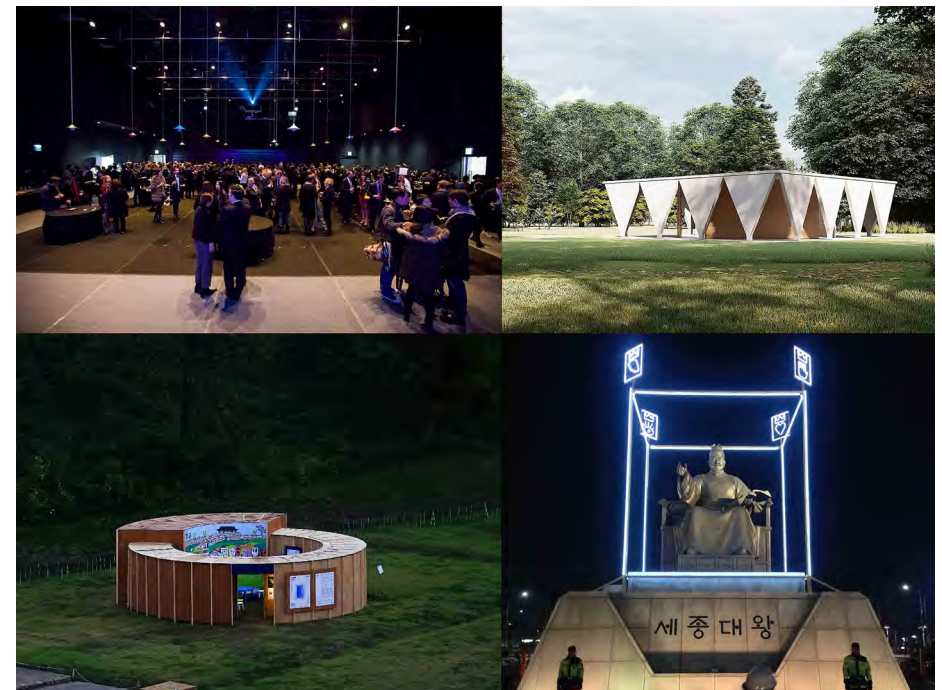
팀서화 TEAM.書畵

팀서화는 시대를 넘어 이어나갈 오늘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미술, 공예, 건축,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시, 행사, 이벤트, 축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공립 기관 및 공사립 문화재단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한국적 가치와 미, 다음 세대로 이을 전통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기획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예술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본사 : 경기도 양평군 오빈1리 길12

서울 사무실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team.seohwa@gmail.com



오픈갤러리



국내 최대 미술품 유통 업체 오픈갤러리는 국내 인기 작가의 원화 그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림 렌탈 서비스와 매입한 작품을 위탁하여 렌탈/판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트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현재 약 1,400명 작가의 작품 50,000여 점을 오픈갤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 오픈갤러리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꿈꾸며, 그림렌탈과 아트테크 서비스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작가는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대중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수에게 주어진 기회로 역량 있는 작가의 활동 기회가 박탈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중과 미술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헤이그라운드

02-1688-1056

opengallery.co.kr

contact@opengallery.co.kr



서울옥션

SeoulAuction EST. 1998

1998년 창립 이래 서울옥션은 한국 최초 미술품 경매 회사로 세계 속 한국 미술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경매사로는 처음으로 2008년 홍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매년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그리고 홍콩에서 활발히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객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 속 미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취지로 2019년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개관했다. 개관 이래 복합문화공간으로 미술품 프리뷰뿐만 아니라 경매, 미술, 전시회, 아카데미, 협업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대중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이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31길 11

02-395-0330

seoulauction.com

art@seoulauction.com



아트경기 채널 안내



인스타그램
@artgg_official
아트경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자



아트경기 누리집
artgg.ggcf.kr
2023 아트경기 한 눈에 살펴보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경기문화재단 운영 공식 누리집



지지씨
ggc.ggcf.kr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3 아트경기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23.08.30
총괄	주홍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기획	원준호, 이지희, 허혜인, 최연주
협조	정지선, 이성열, 조담희, 김한솔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37~8
이메일	artgg@ggcf.or.kr
누리집	artgg.ggcf.kr
디자인	OFNI (오브니)

© 경기문화재단, 2023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